

미·중 무역전쟁

덕성여자대학교 묵사발

장유진, 이서현, 박지현



덕성여자대학교
DUKSUNG WOMEN'S UNIVERSITY





01. 팩트 체크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은 2018년 7월 6일 트럼프 정부가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중국도 똑같이 맞대응하며 열렸다.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을 시사했다. 이에, 대한민국은 최대 수출 대상국인 두 국가 사이에서 국익을 지킬 경제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국제적으로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이 전쟁이 제시하는 시사점에 대한 묵사발의 생각은 어떠한가?

02.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과 미·중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바이든 체제에서도 대중무역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위터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지만, 바이든은 다자간의 협상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전략을 세울 것으로 생각했다. 동맹 우선주의 전략을 취하는 태도기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또한, 무역전쟁이 관세나 불매운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동맹 등의 방식을 통해서 발전적인 전략을 펼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03.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나라

우리는 아세안과 협력을 하는 방안과 중견 국가들과 연합을 맺어 미·중 무역전쟁에 대응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 나라가 힘을 합치게 되면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중견 국가들이 모이게 된다면 힘의 균형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많은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고,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더라도 우리나라가 받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출 시장을 더 확대하고 기반을 다져야 한다.

04. 미·중 무역전쟁의 결말은?

단일한 승리자가 나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막대한 피해가 있으리라 예측된 상황이기에 승패를 가르기 어려우며, 무역전쟁이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연결된 상황이 아니라 더 승리자를 가려내기 더 복잡하다.

권위적인 면을 보았을 때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떠오르는 신흥 세력이지만 미국은 패권국으로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던 세월이 길다. 중국은 성장하고 있지만 불안정하다는 시각이 존재하기에 미국이 이 싸움에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다.

